

4기

현대국어 형태론

개정2판

황 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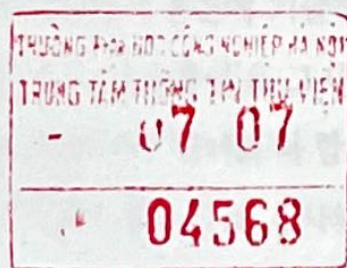
형태론은 단어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단어 내부에 대한 연구이다.

곧 형태론은 단어에 대한 지식을 그 구조(構造)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문법의 한 분야이다.

지식과교양

현대국어 형태론

황 화 상



지식과교양

개정2판
머리말

민초
1월5일

책을 새로 내면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대학 강의의 교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단어 형성을 다룬 6장을 일부 새롭게 구성했다. '어휘적 단어 형성과 통사적 단어 형성'을 본문에서 빼고, 그 주요 내용은 통사적 단어 형성을 중심으로 1장과 7장의 끝에 덧붙인 <참조>에 나누어 새로 기술했다. 어휘적 단어 형성과 통사적 단어 형성의 구분은 학부 강의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본문에 기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그 내용을 보완하고 '규칙에 의한 단어 형성'을 새로 추가하여 '단어화'와 함께 '단어 형성의 기제'로 묶어 기술했다. 이 밖에 '단어 형성 요소, 접사의 지배적 기능, 품사' 등에서 그사이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형식적으로는 각 장의 첫머리에 연습 문제 형식의 <미리보기>를 추가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본문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교수자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강의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장 끝의 연습 문제도 얼마간 보완했다.

2018년 4월 26일

지은이

초판 머리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언어의 단어이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 쓰임을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의미와 문법적 쓰임만은 아니다. ‘뚜껑접시, 다람쥐택시, 스님자장, 식물위원장’ 등 어떤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옳든 그르든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이들 단어를 적어도 ‘뚜껑+접시’, ‘다람쥐+택시’, ‘스님+자장’, ‘식물+위원장’ 등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또한 우리가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이다.

형태론은 우리가 단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단어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모든 연구가 형태론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뚜껑접시’라는 단어가 ‘굽이 없이 뚜껑이 덮여 있는 접시’라는 뜻을 갖는다든지, ‘사과를 쟁반에 담았다.’라는 문장에서 ‘쟁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쓰일 수 있다든지 하는 등 ‘뚜껑접시’라는 단어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는 연구는 형태론이라고 볼 수 없다. ‘뚜껑접시’의 의미, 문장에서의 기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뚜껑접시’를 ‘뚜껑’과 ‘접시’로 나눌 때 비로소 형태론이 된다.

이런 점에서 형태론은 단어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단어 내부

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형식,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단어의 갈래를 다루는 품사론은, 전통적으로 형태론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져 오기는 했지만, 형태론과는 그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 그러나 교착어인 우리말의 경우 단어의 형식적 차이가 형태론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때에 따라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미가 결합하는 등의 형태론적 절차와 관련되기도 하여, 두 연구 분야의 관계가 다른 언어에서보다 밀접하다. 본서에 품사론을 포함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부에서는 형태론의 정의와 영역, 우리말의 형태론적 특징, 형태론 연구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II 부에서는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를 구성하는 그리고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형태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III 부에서는 우리말의 품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IV 부에서는 우리말의 단어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V 부에서는 어문규정 가운데에서 형태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연습문제를 실었는데, 가능한 한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서를 쓰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다. 국어형태론 강의에 쓸 교재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형태론의 여러 영역을 아울러 책으로 엮기에는

초판
머리말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었다. 지난해 한 학기 동안 교재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감출 길이 없다.

우리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 두시고 아껴 주시는 홍종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2011년 6월 23일

지은이

개정판 머리말

책을 내고 이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형태론’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현대 형태론의 중심 분야인 단어형성론을 너무 소략하게 다뤘다. 책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판을 내는 어리석음을 무릅쓴 까닭이다.

단어형성론에 새로운 내용을 일부 보태고 그 구성을 새롭게 했다. 아울러 품사론과 단어형성론의 위치를 바꿔 전체적으로 형태론(제Ⅱ부 단어와 형태소, 제Ⅲ부 국어 단어의 형성)과 품사론(제Ⅳ부 국어 단어의 품사)의 순서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 각 장의 끝에 실은 〈참조〉와 〈연습〉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제Ⅱ부에서는 ‘어기’의 개념을 새롭게 포함하여 단어의 구성요소를 기술했다. ‘어기’라는 용어를 곳곳에 쓰면서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어근’만으로는 단어의 구조와 단어의 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어구조의 분석(직소분석) 방법에 관련된 설명을 일부 추가했다.

제Ⅲ부는 단어형성과 의미(단어형성의 과정, 단어의 형태와 의미, 단어 형성과 의미 추론), 단어형성의 유형(어휘적 단어 형성, 통사적 단어 형성, 유추에 의한 단어형성)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는 단어형성의 부분만 살피고 그 전체적인 모습은 살피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단어형성에 대한 본서

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아울러 접사의 문법적 기능(지배적 기능, 형식적 기능)도 유형적으로 살펴보았다.

처음에 책을 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개정판을 내기까지 내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내용을 선정하는 문제였다. 품사론을 제외하고 단어형성론의 폭을 좀 더 넓힐까 하는 생각이 좀처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체언과 용언의 굴절(조사 결합과 어미 결합)을 제외하면 사실 품사론은 형태론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품사론을 그대로 포함하고 단어형성론의 폭을 크게 넓히지 못한 것은 본서를 학부의 강의 교재로 활용하고자 했던 처음의 생각 때문이다. 곧 다른 분야(어휘론, 통사론 등)의 학부 강의에서도 품사는 문법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다루기 어렵다는 점, 교재는 한 학기 강의에서 충분히 다룰 만큼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형태론 고유의 영역에 대한 기술의 아쉬움은 <참조>와 <연습>, 그리고 <부록>으로 실은 '접사의 목록(뜻풀이와 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체계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목에 걸맞은 내용을 담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 또한 여전하다.

2012년 9월 25일

지은이

제 I 부 총론

13

1. 형태론이란? • 15
2.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 • 24
3. 형태론 연구의 흐름 • 32
 - 3.1. 형태 이론의 발전 과정 • 32
 - 3.2.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 • 51

제 II 부 단어와 형태소

61

4. 단어 • 63
 - 4.1. 단어란? • 63
 - 4.2. 단어의 분석 • 65
 - 4.3. 단어의 유형 • 80
5. 형태소 • 88
 - 5.1. 형태소, 형태, 이형태 교체 • 88
 - 5.2. 형태소의 구분 • 93
 - 5.3. 형태소 분석 • 96

6. 단어 형성의 이해 • 107

6.1. 단어 형성과 의미 • 108

6.2. 단어 형성 요소와 단어 형성법 • 114

6.3. 단어 형성의 기제 • 123

7. 파생 • 138

7.1. 개관 • 139

7.2. 접두사에 의한 파생 • 146

7.3. 접미사에 의한 파생 • 153

7.4. 접사의 형태론적 기능 • 162

8. 합성 • 173

8.1. 합성의 유형 • 173

8.2. 합성어와 구의 구별 • 176

8.3. 품사별 합성 • 178

제Ⅳ부 국어 단어의 품사

9. 품사와 품사 분류 • 195

9.1. 품사란? • 195

9.2. 품사 분류 • 198

9.3. 품사 통용 • 202

10. 체언 • 211

10.1. 명사 • 212

10.2. 대명사 • 220

- 10.3. 수사 • 226
- 11. 조사 • 233
 - 11.1. 격 조사 • 234
 - 11.2. 보조사 • 247
 - 11.3. 접속 조사 • 261
 - 11.4. 조사의 중첩 • 263
- 12. 용언 • 270
 - 12.1. 동사와 형용사 • 271
 - 12.2. 본용언과 보조 용언 • 277
 - 12.3. 용언의 활용 • 282
- 13. 수식언과 독립언 • 295
 - 13.1. 관형사 • 295
 - 13.2. 부사 • 300
 - 13.3. 감탄사 • 308

제V부 형태론과 어문 규정

315

- 14. 단어와 어문 규정 • 317
 - 14.1. 조사와 의존 명사 • 317
 - 14.2. 복합어 • 323
- 15. 어미, 접사와 어문 규정 • 333
 - 15.1. 어미 • 333
 - 15.2. 접사 • 339

부록 • 351

1. 관형사 목록 • 353
2. 접사 목록 • 366
3. 구별하여 적는 단어들 • 411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27

【참조】목록

1. 조사와 어미 결합의 문법 • 21
2. 언어의 형태론적 유형 분류 • 29
3. 과생성(過生成)의 문제 • 57
4. 조사와 어미의 단어 인정 여부 / 어근, 어간, 어기 설정의 이견 • 82
5. 한자어 형태소 분석 • 101
6. 규칙(론)과 유추(론) / 단어 형성과 단어 분석 • 133
7. 개재(介在) 접사의 문법 범주 / '-답-'과 통사적 단어 형성 • 168
8. 통사적 합성어의 형성 / 한자어 단어 형성 / 복합어의 사전 등재 • 188
9. 품사 분류의 기준 • 208
10. 대명사의 구분 • 230
11. 조사의 범주 설정 문제 / 보어와 보격 조사 / '이다'의 문법 범주 • 266
12. 동사와 형용사 통용어로서의 '있다' / 보충법과 보충 형태 • 292
13. 관형사와 부사의 구별 / 수 관형사의 품사 설정 • 310